

금남로에서

신향락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대구·경북지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피는 대구·경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동권남 신공향 백지화 발표로 들끓는 지역 민심을 달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대구·경북을 사랑한다”며 한 말이다.

이어 이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국가예산 편중지원 사실도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2007년 몇천억 원 수준이었던 국고 지원이 올해 대구는 4조 원, 경북은 8조 원에 가까워졌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 의원이 자랑삼아 한 말이겠으나 그 증액 규모가 가히 충격적이다.

특정지역 편중 ‘망국’ 불러

망국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최대 과제로 안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 의원의 ‘이실직고’는 50년 가까이 소외와 억압에 시달려온 호남 사람들로서 참으로 듣기에 민망하고 씁쓸하다.

사실 이명박 정권 3년 여 동안 인사와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영남 독주와 호남 배

제는 노골적이지, 대세로 굳어졌다. 현 정부 장·차관급과 청와대 1급 비서관 이상 165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36%(60명)인데 반해 호남은 겨우 14%(24명)에 불과하다.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인사 싸움’인 셈이다.

대통령 혈관엔 ‘호남 피’도 흘러야

특정지역 편중 예산은 한 술더 든다. 금년도 도로 예산은 당초 정부안 보다 3553억 원이 증액됐지만 증액된 예산의 절반이 훨씬 넘는 1927억 원이 영남에 배정됐다. 이는 호남의 716억 원 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액수다.

지금 광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문제에 현재의 흐름 상 ‘특정지역 염두설’을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과학벨트위원회가 중앙과학기술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거점지구’ 한 곳에 두기로 하고, 일

지 평가의 지반 안정성을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결정할 것은 경쟁 상대인 광주시로서 치명적이다.

핵심시설을 한 곳에 두겠다 합은 광주시의 분산 배치 주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가장 강조돼야 할 지반 안정성이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것 역시 영남권 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광주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앙과학기술기초과학 연구처 등 관련 지반 안전성이 필수요소인데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것은 마치 입지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의견을 맞추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역현안, 정부 외면 안 된다

만일 특정지역에서 F1과 세계박람회와 치러진다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먼 산 구경하듯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현 정부의 이런 흐름 탓이다.

이명박 정부 3년 여 동안 광주·전남은 건설, 조선 등 지역 기간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역경제는 말바다이다. 광주·전남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지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호남 차별’이나 ‘호남 낙후’니 하는 말들을 퇴짜처리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남이’가 굳어진 이 정치 현실이 우리에게 암울하고 허탈할 뿐이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실패한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의 혈관에는 한 지역이 피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피가 흘러야 한다.

(논설주간) hshin@kwangju.co.kr

참사 59주년에 부쳐

시설

광주일보가 참사 59주년을 맞았다. 6·25 전쟁이 한창인 1952년 오늘 ‘불편 부당’의 정론(正論) ‘문화창달의 선봉(先鋒)’ ‘지역개발의 기수(旗手)’라는 3대 사시(社址)를 내걸고 정도(正道) 언론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광주일보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대한민국과 호남이 헤쳐나온 지난 59년의 세월이 그만큼 힘들고 험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일보가 슬한 안락의 도전과 역경을 딛고 호남 대표언론으로서의 위상을 곳곳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무랄할 나위 없이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다.

광주일보는 참사 59주년을 맞아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해쳐나아가 할 난관이 많기도 하지만 지금이 10년 후, 100년 후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국가 안위도 풍전등화(風前燈火) 마냥 위태롭기만 하다. 반세기 여 만에 이뤄진 남북대화의 통로는 다시 막힌 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만행으로 한반도는 냉전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국민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팍팍하기만 하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렵사리 넘기기가 했더니 기름값을 비롯 한 국제 원자재가의 급등으로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며 서민가계를 옥죄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국을 휩쓴 ‘구제역 예방’은 국내 축산업을 거의 황폐화시키다시피 했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비수도권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지방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반면 수도권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진 지방은 이제 설 자리마저 없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균형발전은 정치권의 선전도구로 전락했다.

호남 소외는 더 깊어지고 있다. 호남이 정치·경제의 중심에서 완전히 비켜나면서 지역민은 ‘낙후’를 숙명처럼 여겨야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다. 여기에다 일부 정치세력의 광주·전남과 59년의 세월이 그만큼 힘들고 험난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광주일보가 슬한 안락의 도전과 역경을 딛고 호남 대표언론으로서의 위상을 곳곳이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무랄할 나위 없이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눈앞에 닥친 파도가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민족과 호남인은 그 말만 한 충분한 지역이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일궈내는 기적을 이뤄냈지 않은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고비마다 국난 극복에 앞장서었던 것이 바로 호남이 아닌가.

위기는 곧 기회다. 광주일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과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호남 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시키는 세력에 대해서는 과감히 맞서겠다. 호남 대표 정론으로서 ‘독자중심’ ‘지역중심’ ‘생활중심’의 기사로 호남이, 지역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광주일보는 제 역할도 못하면서 지역신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순(耳順)에 걸맞은 신문다운 신문, 신뢰받는 신문, 품위 있는 신문, 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방사대를 활짝 열아 짓히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광주일보 임직원은 다시 한번 창간정신과 오늘의 시대정신을 적시하며 호남 대표언론으로서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을 약속한다. 지역민과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충고를 바란다.

지역균형발전의 선봉장이 되겠다



송민석



5월이 가까이 다가오면 가슴이 설렌다. 첫 교단에서 만난 제자들과 30년 이상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반창화가 이어져 오고 있음이다.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50대에 들어선 제자부부가 함께하는 연례행사다.

인생이란 ‘인간과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이라고 하던가. 모든 일이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감정이 많이 무뎠지만, 정녕 이 만남과 헤어짐을 소중하게 감싸야 할 것이다.

학교의 새 학년은 새로운 만남으로 시작한다. 선생님과 만남, 친구들과의 만남은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자 커다란

하기보다는 선배 교사들의 삶에 배어있는 학교 문화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였으면 한다.

“요즘 젊은 교사들은 굉장히 똑똑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교사 자신이 똑똑하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선배 교사들의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머리로만 받아들인다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나이 지긋한 선생님께서도 들은 이야기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사는 똑똑한 교사보다는 지혜로운 교사가 아닐까.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진아들도 있는

초임 교사들에게

변화의 계기가 되지 않던가. 매년 신학기가 되면 그동안 교직에 몸담아 온 원로 교사들이 퇴직하고, 그 자리를 신규로 임용된 교사들이 채운다. 갈수록 치솟는 임용고시 경쟁률을 뚫고 교육가족의 일원이 된 새내기 교사들이다.

학부형이 보내온 상품권을 돌려보내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메모장에 할 일을 꼬박꼬박 정리하며 일정을 계획 있게 채워가는 새내기 교사들의 다부진 모습을 통해 내일의 희망을 보아왔다.

그러나 학교는 일반 직장처럼 위계질서가 뚜렷하지 않다. 특이한 게 특이하다. 동료 교원들 간에 인간관계가 특히 중요시된다. 초임 교사의 경우 선배 교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나이나 경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젊은 교사와 원로 교사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이해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젊은이의 ‘합리성’과 ‘공정성’의 잣대로 선배 교사들을 손쉽게 재단하려고

그대로 껴안으면서 다독여주는 아량과 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선배 교사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자 한번쯤 고민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교사가 되었으면 싶다.

“교육은 감동”이라고 한다. 사람에게 의한 감동의 결과가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모든 것에 어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마련이다. 아이들 나쁜 특징을 발견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자.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감동되고, 이웃의 배려와 격려에 큰 힘을 얻는다. 우리 아이들은 감동을 받으며 성숙해가고 있음이다.

새 출발하는 초임 교사들이여, 가르침에 앞서 보여주는 선생님이 되길 바란다. 교육의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그대, 그 학교, 그 선생님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대, 그 학교, 그 선생님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UNIST 입학사정관·전 여천고 교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자를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이신백



지난해 빛고를(광주)를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무려 23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73%)을 보였다. 빛고는 민주의 성지요, 예술과 문화의 전당이다. 앞으로 광주대표행사인 비엔날레와 김치축제 그리고 여수엑스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적인 큰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그러나 이곳 빛고을에 국내관광객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맞을 인프라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외국인관광객이 단발성으로 행사기간 동안 체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는 귀인(歸因)을 분석하여 시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필수적으로 숙박업과 식당에 중사하

할 것이다. 잔치만 벌이고 정작 내용이 없다면 오히려 이미지만 실패되고 다시는 우리 빛고을을 찾지 않을 것이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한다. 첫째 먹을거리. 둘째 볼거리. 셋째 즐길거리다. 과연 빛고을에서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가?

먹을거리는 워낙 음식문화가 발달한 우리 고장이기에 어려움이 없다. 볼거리는 가시문화권과 무등산을 개발하여 접근성을 높인다면 충분하다. 그러나 즐길 거리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해외여행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빛고을 브랜드 세계에 알리자

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언어(외국어)교육과 서비스, 예절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편인 종사자들의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고 외국어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곳 빛고을의 대표적인 문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 문화이다. 빛고을의 전통음식과 특산물 등을 개발하여 브랜드화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김치를 ‘빛고을 김치’로 브랜드화하고 전통 한식과 오리요리, 떡갈떡 등도 브랜드화한다면 충분히 빛고을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 사직공원의 통기타 주점과 불로동 웨딩문화, 장례문화 등도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빛고을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은 무등산이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보존은 무등산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다.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해 천연기념물(제465호)인 서석대과 입석대를 외국관광객 등 모든 사람이 올라가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알 것이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정서와 법규제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전통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계문화와 정서에 눈높이를 맞춰야 외국인관광객이 우리 나라를 찾을 것이다.

가까운 동남아만 하더라도 호텔마다 슬롯머신 카지노가 있으며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지만 관광객을 위하여 마사지 등 위락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볼거리 문화나 놀이문화가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회나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관광홍보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한 예로 지난해에 빛고을 문화 세계화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한·중 윤리학술회에서 이곳 광주에서 개최되었는데 빛고을 문화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정음성 생각을 방문 했을 때 중국교수들이 북문을 할 정도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단체나 국적이 관계없이 우리 빛고을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 빛고을 시민 모두가 홍보대사가 되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당당히 알려야 한다.

<빛고을 문화 세계화 운동본부 회장>

無等鼓

“김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화성인이 지구를 탐험했습니다.”

1938년 10월 30일 저녁 미국 CBS라디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화성인 군대가 뉴저지의 한 농장에 착륙, 그곳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있다고 소식이었다. 지금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지만, 이 뉴스는 천재적 연출가였던 오손 웰스가 연출한 드라마 ‘우주전쟁’의 일부였다.

부분의 작품은 ‘가치관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들 작품에서 지구보다 훨씬 뛰어난 문명을 지닌 외계인들은 최첨단 무기를 사용, 아무런 감성 없이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건물을 파괴한다. 종교를 비롯해 어떠한 개인적·사회적 가치관도 개입되지 않으며, 오직 아군과 적군의 대결만이 존재한다. 갑작스럽고 냉정한 살육만이 있을 뿐, 서로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지구와 외계인간 싸움의 규칙이다. 귀찮은 귀를 벌이 죽이고서도 서로에게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식이라고나 할까.

최근 대전지역으로 폭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상공을 UFO(미확인비행물체)가 가로지르는 모습이 독일 TV카메라에 잡혔다. 왜 케보이는 이 물체가 바로 그 외계인의 비행체라면, 그들이 ‘대형 사고를 내고서도 어쩌탈 줄을 모르는’ 인간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지 무척 궁금해 여년 동안 수많은 야구를 낚았지만 대

외계침공



당시 기자 역을 맡은 오손 웰스의 연기가 얼마나 그럴듯했던지 청취자들은 방송도중 ‘오손 웰스의 드라마를 보낼드리고 있습니다’란 안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외계인 침공을 현실로 생각했다. 뉴욕에서는 수천 명이 파란을 가고 피츠버그에서는 절망한 여성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미국 전역이 한동안 패닉상태에 빠졌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장르로 정착된 ‘외계인 침공’ 드라마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이 ‘우주전쟁’은 지난 70여년 동안 수많은 야구를 낚았지만 대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상공을 UFO(미확인비행물체)가 가로지르는 모습이 독일 TV카메라에 잡혔다. 왜 케보이는 이 물체가 바로 그 외계인의 비행체라면, 그들이 ‘대형 사고를 내고서도 어쩌탈 줄을 모르는’ 인간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지 무척 궁금해 여년 동안 수많은 야구를 낚았지만 대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휴대전화 요금제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해야

휴대전화의 비싼 요금도 문제지만 더 혼돈되게 하는 혼란스러운 요금체계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요금제를 변경하면서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이 운영중인 휴대전화 요금제 회사마다 무려 80종류가 넘었다. 하지만, 기본료와 각종 서비스료 계산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본인에

게 유리한 요금제를 찾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가입자들 대부분은 대리점 직원의 권하는 ‘표준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표준요금제는 어디거나 일반적인 요금제일 뿐 나에게 적합한 요금제는 아니다. 이동통신사의 알팍한 술수에 사람 들만 봉이 되고 있다.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선택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아야겠다.

▲김은구·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孝榮 편집국장 申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기사·지국(구독신청·대금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메일 227-9600 독자서비스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